

‘EV·PBV·픽업’ 중장기 전략 설정... “2030년 419만대 판매”

기아, CEO 인베스터 데이

42조 투자... HEV 라인업 대폭 확대
2030년 글로벌 점유율 4.5% 달성
지속가능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 전환

기아가 향후 5년 뒤 글로벌 시장점유율 4.5%를 달성하기 위해 총 42조원을 투자하고 2030년에는 친환경차 233만대를 포함, 모두 419만대의 차량을 판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아는 9일 ‘2025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어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더욱 구체화한 중장기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오는 2030년 419만대를 판매, 글로벌 시장점유율 4.5%를 달성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차 라인업을 10종까지 확대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미래 사업 19조원을 포함해 총 42조원을 투자할 방



기아 송호성 사장이 9일 ‘2025 CEO 인베스터 데이(CEO Investor Day)’에서 기아의 중장기 사업 전략과 재무 목표 등에 설명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침이다. 이는 기존 계획(2024~2028년) 대비 4조원을 늘린 규모다. 올해 재무목표는 매출액 112조5000억원, 영업이익 12조4000억원, 영업이익률 11.0%를 제시했다.

이번에 제시한 2030년 글로벌 판매 목표는 지난해 같은 행사에서 제시했던 430만대 대비 11만대 줄어든 수치다. 중

국 시장 목표치를 현실화하면서 전체 판매 목표 대수가 줄었으며, 전기차 판매 목표도 지난해 제시했던 2030년 160만대에서, 이번 발표에선 125만9000대로 줄었다. 반면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를 포함한 친환경차 판매는 오히려 늘었다. 2030년 기준 하이브리드 계열(xHEV) 판매

목표는 107만4000대로, 전체 전기차와 HEV 계열을 포함한 친환경차 판매 목표는 233만3000대로 새롭게 제시됐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종 라인업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말 기준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내연기관 23종, 전기차 9종에서 2030년에는 내연기관 17종, 전기차 15종으로 전동화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셀토스, 텔루라이드 등 인기 차종에도 HEV 모델을 추가해 10종으로 확대하고 2030년에는 HEV 판매를 99만3000대까지 늘린다.

HEV 판매 확대를 위해 기아는 적극적 투자를 통한 파워트레인 생산시설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2030년까지 90만대 이상의 HEV 파워트레인 공급을 구상중이다.

전기차 판매 목표는 글로벌 시장의 캐즘을 반영해 올해 32만4000대를 시작으로, 2027년 78만3000대, 2030년 125만9000대로 목표치를 제시했다. EV3, EV4, EV5 등 EV 대중화 모델을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며 전기차 구매 진입장벽을

낮추고, 2026년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2 출시로 풀라인업을 구축할 예정이다. 원가 경쟁력과 상품성을 갖춘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는 한편, 하드웨어 최적화, 차세대 전자아키텍처 적용, 차량 소프트웨어 고도화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

충전 인프라도 늘릴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2326기가 설치된 초고속·급속 충전기를 2030년까지 1만3000기 이상 구축한다. 북미에서는 아이오나(IONNA)를 통해 2030년까지 초고속 충전기 5만기 이상, 유럽은 아이오니티(IONITY)와의 제휴로 1만7000기 이상을 구축한다.

기아는 PBV를 통해 글로벌 경량용차 시장 진출에 속도를 높인다. 올해 7월 PV5, 2027년 PV7, 2029년 PV9을 순차적으로 출시하며 라인업을 확대한다. 모델별 2030년 판매 목표는 PV5 13만 5000대, PV7과 PV9을 11만5000대 판매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이재용 회장, 日 출장 마치고 1주일만에 귀국

(삼성전자)

이 회장, 글로벌 경영 박차
북미·유럽 등 출장길 전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7박8일간의 일본 출장을 마치고 9일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최근 중국에 이어 일본 출장까지 소화하며 직접 해외 경영자와 만남을 갖는 등 글로벌 경영 행보를 확대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서 일본 출장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지난 2일 일본 출장에 나선 이 회장은 현지에서 일주일간 비즈니스 미팅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미팅에서 이 회장은 삼성의 일본내 협력회사 모임 ‘LJF’에 속한 반도체, 스마트폰 등 소재·부품 협력사 등과 두루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회장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나 AI 사업 협력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커 보



일본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일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로 귀국하고 있다. /뉴스1

인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2월 방한해 이 회장과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와 함께 3자 회동을 가진 바 있어 이번에 이 회장의 답방이 이뤄졌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본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수장들을 만났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전자는 일본에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영업법인과 요코하마에 반도체 패키지 연구개발(R&D) 거

점인 ‘어드밴스드 패키징(PLP)’을 짓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이 회장은 수시로 일본을 방문하며 네트워크를 다져 오고 있다.

향후 이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중국과 일본에 이어 북미, 유럽, 베트남, 중동 등 세계 각지로 출장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양성운 기자 ysw@

정기선 부회장, 서울모빌리티쇼 현장 찾아

(HD현대)

글로벌 모빌리티 기술 흐름 직접 살펴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이 지난 8일 ‘2025 서울모빌리티쇼’ 현장을 찾았다. 이날 정 수석부회장은 스마트 굴착기 신제품을 선보인 HD현대 부스를 비롯해 주요 전시관을 방문하며 글로벌 모빌리티 기술의 흐름을 직접 살펴봤다.

9일 HD현대에 따르면 독자 개발된 신기술이 탑재된 굴착기를 확인한 정 수석부회장은 대한민국의 기술 경쟁력을 통해 HD현대의 육상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을 강조하며, 전시관 내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미국 CES 행사에서 발표한 육상 혁신 비전 ‘사이트 트랜스포메이션(Xite Transformation)’이 국내에서 먼저 실현되는 현장을 살피고, 미래형 모빌리티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도약하려는 비전을 점검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HD현대관을 방문한 후 현대자동차, 롯데, 기아 등 주요 기업들의 전시관을 차례로 방문하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현재와 향후 방



2025서울모빌리티쇼 HD현대관을 방문한 HD현대 정기선 수석부회장이 차세대 신모델 굴착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HD현대

향을 직접 확인했다.

현대차 전시관에서는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차 기술을 살펴보고, 롯데 전시관에서는 도심 교통의 패러다임을 바꿀 자율주행 버스 기술을 소개받았다. 이어 방문한 기아 부스에서는 교통 약자를 위한 장애인 전용차량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에 구현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점검했다.

/양성운 기자 ysw@

“금성전파사에서 ‘AI 코어테크’ 만나보세요”

LG전자 ‘트롬하우스’ 리뉴얼

LG전자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내 복합문화공간 ‘금성전파사’에 인공지능(AI) 세탁·건조 체험존 ‘트롬하우스’를 리뉴얼하고, 핵심 부품 기술에 AI를 결합한 ‘AI 코어테크’를 알린다고 9일 밝혔다.

트롬하우스는 세탁기와 건조기의 핵심 기술인 ‘AI DD 모터’를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AI DD 모터는 세탁물의 무게와 재질을 감지해 옷감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최적의 세탁·건조를 구현한다. 영상과 전시를 통해

세탁 드럼과 모터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현장에서는 AI 기반 프리미엄 제품 ‘트롬 AI 워시타워’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세탁량과 사용 패턴을 학습해 시간과 코스를 추천하는 ‘AI 타임센싱’, ‘AI 시간안내’, ‘AI My 코스’ 등 편의 기능이 강화됐다. 기존 대비 60% 커진 디스플레이를 통해 AI 리포트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워시타워 내부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AI가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고 스타일링을 추천해주는 재미 요소도 마련됐다. 트롬하우스는 오는 6월 말까지 운영된다.

LG전자는 금성전파사에 의류 관리 기기 ‘스타일러’ 체험 공간도 새로 조성했다. 지난달 출시된 ‘뉴 스타일러(2025년형)’는 히터 두 개를 탑재한 ‘듀얼트루스팀’ 기능으로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등 유해세균 10종과 바이러스 11종을 99.99% 살균할 수 있다. 집먼지진드기와 빈대 제거 기능도 강화됐다. 또 3분 만에 예열되는 고압 스티머와 사용 중 스티머를 내려둘 수 있는 ‘슬라이딩 스탠드’ 등 편의성도 개선했다.

정광우 LG전자리빙솔루션마케팅담당은 “AI 코어테크를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통해 고객이 LG전자 AI 가전의 편리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

현대제철, ‘WSA 지속가능성 챔피언’ 등극

(세계철강협회)

현대제철이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가능경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현대제철은 지난 8일(현지 시간)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 정기총회에서 ‘2025 지속가능성 챔피언’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세계철강협회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160여 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후, 안전 분야 등을 평가해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를 선정해 오고 있다. 현대제철은 2023년 첫 수상

이래 올해 두 번째로 최우수 멤버인 지속가능성 챔피언에 선정됐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세계철강협회의 최우수멤버 선정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챔피언으로 선정됨으로써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현대제철의 노력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지속 성장이 가능한 친환경 철강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